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禪問答

〈선문답(禪問答)〉이란 책을 펴낸바 있다. 선문답에 대한 관심과 울림을 위해 옮겨본다.

1. 상서(祥瑞)로운 일

한 여자 신도가 말했다. "큰 스님들이 열반에 드신 후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떠오르거나, 어두운 밤에 방광(放光)의 빛줄기가 하늘로 뻗친다는 말을 들었는데 스님께서 훗날에 열반에 드시면 어떤 상서로운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죽으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질 것입니다."

2. 밥으로 살지

한 학생이 말했다. "여자는 아름다움으로 살고 남자는 명예로 산다고 합니다. 그럼 수행자이신 스님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밥으로 살지."

3. 환하게 드러낸 걸

한 스님이 물었다. "〈벽암록〉7칙에 있는 공안(公案)입니다. 혜초라는 이름의 구도자가 법안 선사에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 답하기를 '그대가 혜초로구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대는 혜초가 아니로구나."

4. 솥에서 끓고 있는

한 스님이 물었다. "도마 위에 오른 물고기가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솥에서 끓고 있는 멸치에게 물어보게나."

5. 바른 눈과 바른 손에 대해

한 스님이 내게 물었다.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의 천개의 손, 천개의 눈 중에 어떤 손이 바른손이며 어떤 눈이 정안(正眼)이겠습니까?"

"보는 것이 정안(正眼)이요 쓰는 것이 바른손이지."

6. 부모님한테서 몸 받기 이전

한 도반이 내게 말했다. "부모님한테서 몸 받기 이전(父母未生前) 스님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답하길 "흐르는 물이 안개 되어 비바람을 몰고 옵니다."

7. 동그라미 그려놓고

한 선객이 내게 물었다. "스님을 가운데 두고 큰 동그라미를 그려놓을 경우 스님께서는 그 동그라미의 선(線)을 지우지도 넘어오지도 말고 밖으로 나올 수 있으십니까?"

하여, 내가 말하였다. "스님께서 먼저 선을 넘지도 지우지도 말고 내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구려. 그럼 그때 내가 나가리다."

8. 몸 안에 갇혀

교수 몇 분이 와서 나눈 대화다. 기독교를 신앙 한다는 교수에게 내가 물었다. "교수님은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십니까? 마음 밖에 모십니까?"

"마음 안에 모시지요."

"그럼 마음은 몸 안에 있습니까? 몸 밖에 있습니까?"

"마음은 몸 안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몸 안에 갇혀 답답하시겠군요."

9. 하늘이 잔뜩 흐려 있어서

한 스님이 찾아와서 내게 말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데 우리 중생들은 왜 손가락만 보게 될까요?"

"달보다는 손가락이 가깝게 있기 때문이지."

"달은 하나이나 천개의 강에도 달그림자를 남깁니다. 스님께서는 손가락도 달그림자도 아닌 진짜 달을 보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은 어렵겠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어서."

10. 짚신을 머리에 이고

한 스님이 내게 물었다. "〈벽암록〉63칙에는 남전선사가 고양이 목 자른 부분이 실려 있고 64칙에는 조주선사가 짚신을 머리에 이고 문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63칙과 64칙의 공안에 대해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남전선사는 고양이는 죽였으나 동서양당(東西兩堂)의 스님들을 살렸고 조주선사는 짚신을 머리에 이어 천둥번개 치는 소식으로 태평가를 부른 것이지요."

11. 골고루 나누어 먹고

한 도반 스님이 해외여행 중 내게 말했다. "예전에 보문 스님이 해인사의 ○○ 스님에게 묻기를 '날마다 법당의 부처님 전에 마지를 올리는데 부처님은 어디로 그 밥을 받아먹겠는가?' 하고 물으니 ○○ 스님은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 물음에 어떻게 답 하시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먹고 만인(萬人)이 두루 편안합니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먹고
만인이 두루 편안한 이치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금화구지(金華俱胝) 선사는 당나라 때 스님이나 정확한 생몰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았다. 남악문하의 계열로 마조의 제자인 대매법상(大梅法常:752~839)의 법을 이은 항주천룡(杭州天龍)의 제자다. 스승 천룡과 제자 구지 사이에 나온 일지두선(一指頭禪) 이야기가 있다. 이것 역시 선종의 한 공안인데 특이한 일화를 남기고 있다. 일지두선의 시작은 천룡에서 비롯되었으나 구지화상이 평생 동안 일지두선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 구지화상이 실제(實際)라는 비구니에게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말이 막혀 체면을 구긴 적이 있었다. 자신의 공부가 비구니 보다 못한데 대해 큰 자괴심을 느꼈다. 어느 날 천룡이 그의 처소에 왔을 때 실제 비구니가 자신에게 물었던 것처럼 똑같이 물어 보았다. 천룡화상이 바른 손을 쑥 내밀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이 순간 구지가 깨달음을 얻었다. 참으로 묘한 오도의 계기를 얻었던 것이다. 구지가 입적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평생 엄지손가락 하나로 법을 보였는데 아직도 엄지손가락 법문을 다 쓰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무문관〉 3칙에 구지화상의 일지두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구지화상은 누가 무엇을 묻던 간에 한 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후에 절에 있던 동자(童子)가 구지화상이 부재중에 절로 찾아와 화상의 법요를 묻는 외부에서 온 사람의 질문에 화상과 같이 흉내를 내어 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안 구지화상이 동자의 손가락을 칼로 베어버렸다. 동자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갈 때 화상이 동자를 다시 불렀다. 동자가 머리를 돌려 돌아보자 이때 화상이 손가락을 세워보였다. 이로 인해 동자가 홀연히 깨달았다"라고 하였다.

손가락을 잘린 동자가 울며 도망을 가다 스승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다 스승이 세워 보이는 손가락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혹자는 이것을 유(有)와 무(無)를 뛰어 넘는 절대의 경지라고 하기도 하였다.

〈무문관〉 '평창(評唱)'에는 이렇게 말해 놓았다. "구지와 동자가 깨달은 핵심은 손가락에 있지 않다. 만약 이 공안의 참뜻을 알아차리면 천룡(天龍: 구지에게 일지두선을 가르쳐 준 스승)과 구지와 동자를 모두 자기 자신과 더불어 하나로 꿰뚫을 것이다.

또 〈벽암록〉 19칙 '평창'에는 "손가락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면 구지선사의 뜻을 등지는 것이며, 손가락을 외면하고 이해하면 생철을 주조한 것과 같아 씹어서 맛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해해도 이럴 것이며 이해하지 못해도 이럴 것이다. 높아도 이럴 것이고 낮아도 이럴 것이다. 옳아도 이럴 것이고 틀려도 이럴 것이다. 그러므로 티끌 하나가 일어나면 바로 대지 전체를 그 속에 거두어들이고, 꽃 한 송이가 피려하면 세계가 전부 일어나며, 사자의 한 터럭에 백억 개의 사자가 나타난다고 한다" 라고 하였다.

구지선사의 한 손가락은 알고 모르고, 높고 낮고, 옳고 그름 등을 담아내는 수단이다. 그러나 손가락에서 알아차리려 해도 잘못이고, 손가락을 떠나 알아차리려 해도 잘못이다. 이것이 이 양자 어는 곳으로도 나갈 수 없는 데서 이 일화는 공안으로서 생생하게 성립된다.

『선문염송설화』 522칙에는 원오극근(圓悟克勤) 선사가 구지의 일지두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구지가 찾아오는 스님들의 질문에 대답할 적에 으레 한 손가락을 세웠으니 아마도 위로 통하고 아래로 사무쳐 걸림 없는 경지에 계합(契合)해서 증득하려는 것이다. 병이 나은 이는 약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거늘, 후세 사람들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예사로 손가락을 세우니 검고 흰 것도 구분 못하고 사람을 속이고 있다. 이른바 '천 균(鈞)의 쇠뇌(弩)로는 다람쥐를 향해 쏘지 않는다' 했으니, 그러기에 정수리에 눈을 갖춘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나중에 조산(曹山)이 구지의 깨달은 경지가 어리둥절하다 했으니, 그는 겨우 한 계기 한 경계만 알았을 뿐이다. 어떤 장님 같은 이가 말을 따라 알음알이를 내어서 구지를 억누른 일을 사실이라 여기나니 마치 벽돌을 뜨겁게 구워서 바닥까지 언 것을 치는 꼴과 같은 줄을 전혀 모르도다. 자세히 살펴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비심 없다면 성불 못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⑲ 지혜와 자비의 수승함

智悲解脫品第二十六
智悲二事何者爲勝° 智者唯能自歸依° 悲者能使他人歸依無上之道° 有悲無智非智者所愛° 有智無悲亦非智者所愛° 能障無上道° 智不與悲心相應° 能障無上道智° 菩薩以爲無智° 一念不樂生死悲不欲解脫° 解脫味如甘露悲者以爲無味° 如美食無鹽以爲無味° 解脫雖甘若無悲心菩薩以爲無味° 若大悲與解脫別解脫皆應敬禮° 以大悲是諸佛母故° 解脫者名永無餘滅一切事° 悲心如善呪° 能呪死者還活° 若受有相續不斷身者是常過° 若取解脫是斷過° 離二邊故名之爲佛救一切眾生° 若無佛者則無解脫° 若無悲者亦無得佛° 悲能生解脫° 以是事故菩薩取悲° 悲體一事能作二事° 一能救眾生° 二能生佛種智°

번역 | 지비해탈품 제26

지혜와 자비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수승할까요. 지혜는 오직 능히 스스로의 귀의처가 되고, 자비는 능히 타인의 귀의처가 되는 위없는 도입니다. 자비가 있되 지혜가 없어도 지혜 없는 이가 사랑하는 바가 되며, 지혜가 있고 자비가 없어도 역시 지혜 없는 이의 사랑하는 바가 되지만 능히 위없는 도를 장애합니다. 지혜가 자비심과 더불어 상응하지 못하면 위없는 도에 장애가 되는 지혜입니다. 보살로서 지혜가 없으면 일념으로 생사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자비로 해탈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해탈의 맛은 감로와 같지만 자비로운 이는 무미하다고 여기는데, 좋은 음식에 소금이 없는 것처럼 맛이 없다고 여깁니다. 해탈이 비록 감로와 같아도 만약 자비심이 없다면 보살로서는 맛이 없습니다. 만약 대비와 해탈과 별해탈을 다 응당 공경할 것은 대비로써 모든 부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탈이란 일체의 일이 멸하여 남음이 없다는 말인데, 자비심은 선한 주문 같고, 능히 주문으로 죽은 자를 살립니다. 만약 윤회상속하는 몸을 끊지 못하면 항상 과오며, 만약 해탈을 취하면 과오를 끊는 것인데, 두 가지 경계를 떠났기에 부처라 부르며,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처가 없으면 해탈도 없고, 만약 자비가 없다면 역시 부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비에서 능히 해탈이 생기는데, 이러한 일로써 보살이 자비를 취합니다. 자비의 근본 바탕은 하나지만 두 가지 일을 짓는데, 첫째는 능히 중생을 구제하며, 둘째는 부처의 지혜 종자가 생기게 합니다.

해설 | 지혜란 무엇일까.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고, 깨달아야 부처를 이룬다.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해탈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탈이란 일체의 일이 멸하여 윤회 상속하는 몸이 없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해탈하고자 하는 이는 생사를 싫어한다고 알고 있다. 생사를 싫어해서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바보살은 놀라운 말을 한다.

'지혜 없는 이가 일념으로 생사를 싫어합니다.'

불교 공부를 설핏하신 분은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고, 불교 공부를 좀 깊게 하신 분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생사와 해탈이라는 두 가지에서 조차 벗어난 이가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살은 생사윤회에 개의치 않는 존재다. 오로지 자비만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자비로써야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자비가 부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탈의 맛이 아무리 감로와 같아도 보살에게는 소금 간이 안 된 좋은 음식처럼 맛이 없다. 지혜로 해탈을 이루었다고 해도, 시큰둥하다. 진정한 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를 이루는 지혜 종자는 바로 자비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제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2월 14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